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위험한 건물들



김성중
작가·추리문학관 관장

서민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바닷가의 값비싼 고층 아파트들. 겉으로 보기에 바다 위에 신기루처럼 떠있는 것이 마치 꿈의 궁전처럼 보이고 더할 수 없이 멋지고 근사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언제라도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아파트들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서 50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원인이 하나 같이 질식사였다. 모두가 화확물질이 타면서 내뿜은 시커먼 연기에 질식사해서 사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질식사한 참사 원인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

원인은 몇 가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건물의 구조적인 측면에 있다. 한밤중에 불이 나서 곤한 잠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서둘러 일어나 대피하기 위해 현관으로 몰려나가 출입문을 열었다. 순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시커먼 연기가 물려들었다. 황급히 철문을 닫은 가족들은 골목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후관거리는 열기와 함께 눈을 찌르고 악취를 내뿜는 시커먼 연기가 문 틈을 통해 집 안으로 스며들며 밀려들어 오고 있지만 대피할 공간이 없으니 도무지 속수무책이다. 아이들은 울부짖으면서 매달리지만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손바닥 만한 창문을 열어 놓는 것뿐이다. 그제서야 그는 테라스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이럴 때 테라스가 있다면 가족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아버리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아파트들과 비교해보면 그들의 화재 예방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일본의 아파트들은 저층이건 고층이건 간에 반드시 테라스가 설치되어있고, 테라스를 샅샅이 가려놓지도 않는다. 거기다 테라스는 건물을 한 바퀴 빙 돌아가며 만들어져있다. 그리

고 세대 간 테라스에는 형식적으로 칸막이가 설치되어있는데 그것은 언제라도 발로 차면 떨어져 나가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또는 다른 집에서 난 불 때문에 연기가 물려올 경우 그 집 가족들은 일단 자기 집 테라스로 피신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칸막이를 걷어치우고 옆집으로, 또 옆집으로, 막판에는 건물의 뒤쪽 테라스까지 피신할 수가 있다. 피할 데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이 온 가족이 집 안에 갇혀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우리네 아파트하고는 얼마나 다른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파트 업자와 설계자는 요즘 아파트에는 2, 3층마다 대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실상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문 밖에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차있을 경우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피소까지 찾아가란 말인가.

과거에는 우리 아파트에도 테라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인 강제 규정이 엄연히 있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에는 테라스가 있었는데, 입주자들이 거실을 넓게 쓸 목적으로 하나둘씩 불법적으로 테라스를 없애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는 그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여론에 놀려 법규정마저 흐지

부지되거나 급기야 테라스를 없애는 것이 합법화되고 말았다.

법으로 한 번 안 된다고 규정해놓으면 당국은 그것을 끝까지 집행해야 하고 시민들도 그것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좀더 넓게 살려고 하다가 참극을 맞으면 누구한테 그 탓을 돌리겠는가. 앞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이제부터라도 의무적으로 테라스를 설치해야 하고, 당국도 테라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뒤살려 테라스를 없애는 어리석음을 막아야 한다. 그런 조치들을 통해 우리 아파트의 안전 수준을 일본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테라스를 설치함으로써 돌아오는 이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층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통풍을 해결할 수가 있고, 태풍이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차있을 경우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피소까지 찾아가란 말인가.

과거에는 우리 아파트에도 테라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인 강제 규정이 엄연히 있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에는 테라스가 있었는데, 입주자들이 거실을 넓게 쓸 목적으로 하나둘씩 불법적으로 테라스를 없애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는 그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여론에 놀려 법규정마저 흐지

社說

광주 고교 배정 사태에도 대책이 없다니

광주지역 고교 강제배정 사태가 심각하다. 광주시교육청이 고교 배정 부작위를 사전에 알고도 무시했는가 하면 구체적인 사실상 없는데도 사과 내지는 책임질 사람조차 없기 때문이다. 장외국 교육감이 사태가 확산되자 “문제를 꼼꼼히 분석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라”고 주문한 게 전부다.

먼저, 시교육청이 새로운 고교 배정 방식의 문제점을 알고도 알지만 이를 밀어붙였다는 점이다.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강제 배정될 수 있는 학생이 수백에서 수천 명까지 발생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성적에 따른 균등 분할 방식’ 도입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결국 687명의 학생들이 희망학교 7곳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으며, 일부 사립중학교는 같은 법인 소속 고교에 무배정이라는 황당한 경우를 낳기도 했다. 사립학교 선호도를 줄이고, 공립학교 기피현상을 강제로 완화해 공교육을 살리자는 그릇된

발상이 화를 키운 셈이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이렇다할 구체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나 학부모들이 서로 원하는 학교에 1대1 교류를 주문하고 있지만 특정학교에 쏠릴 경우 해결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학군 분할도 남पुर에 학교가 몰려 있어 얼마지 오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에도 선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알고도 알지만 이를 밀어붙였다는 점이다.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제 배정될 수 있는 학생이 수백에서 수천 명까지 발생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성적에 따른 균등 분할 방식’ 도입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결국 687명의 학생들이 희망학교 7곳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으며, 일부 사립중학교는 같은 법인 소속 고교에 무배정이라는 황당한 경우를 낳기도 했다. 사립학교 선호도를 줄이고, 공립학교 기피현상을 강제로 완화해 공교육을 살리자는 그릇된

명절 앞 체불임금 급증 특단 대책 강구하라

설을 앞두고 종합건설업의 하청업체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체불임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체불이 많아졌으리라 예상은 했으나 지난 해 한해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이 전년 대비 16.5%나 늘었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체불임금은 531억여 원으로 2011년 456억 원에 비해 75억 원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광주·전남 체불 발생 사업장 6193개 중 5인 미만 사업장 3607곳, 5~29인 사업장 2053곳에서 체불이 발생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5660곳으로 전체의 91.4%를 차지, 주로 영세 업체에서 체불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건설업 하청업체의 체불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노조 조사결과 지난해 한 해 체불은 239건, 25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보다 37.7%나 증가한 규모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중 70% 이상이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공사라는 점이다. 실제 15개 공사현장 중 10곳이 정부기관을 비롯해 광주시와 함평군 등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라니 누구를 위한 공공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다.

체불이 급증한 것은 건설업체 등 업체들이 장기체전에 빠지면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한 탓이다. 이는 곧 하청업체의 경영악화와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우선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선지급 등 특단의 체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청·경찰의 약력 체불 업무 발본색원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사회 각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말이 헛구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의료칼럼

고맙고 사랑스러운 돼지 이야기



정명호
전남대 의대 순환기내과 교수

내가 돼지와 인연을 맺은 것은 순환기내과를 전공으로 한 덕분이다. 돼지 심장 모양이나 혈전 체계가 사람과 비슷해 심장 질환을 연구할 때에 돼지 심장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전임강사 발령을 받고 1990년대 초반 미국심장병학회에 참석했을 때, 끝이 보이지 않던 회화장을 보고 놀랐던 일이 떠오른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환자가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심장병 환자에

대한 많은 데이터와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가 가능할지 부러웠고, 선진국과의 수준차를 느껴 마음이 아팠다.

그 해 연구를 위해 미국 메이요클리닉에서 연수를 했다. 1995년 말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돼지 농장을 찾아 나섰고, 돼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같은 대학 교수님의 소개로 무안시의 한 돼지농장으로부터 돼지를 공급받고, 돼지 실험실을 임상연구소 8층에 마련해 귀국한 지 한 달 만에 첫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당시엔 제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실험이 끝나면 돼지를 다시 무안농장으로 돌려보냈고, 연구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돼지를 들고 8층까지 오르내려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다음해 돼지 사육시설을 만들었고, 1997년에는 최신행 혈관관류기도 들여와 드디어 국내 최초의 동물 심도자실을 완성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순환기 환자가 급증

하는 바람에 낮에는 환자들을 위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술하고, 밤이나 주말에 동물 실험을 했다. 돼지 실험 시작 당시는 환자 진료가 끝나면 나머지 시간을 모두 실험에 할애해야 하고, 많은 연구비가 필요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다.

초기엔 연구비만 많이 들어가고 결과도 국제 수준에 비해 초라한 실정이라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주위 분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학회 연구비, 국책과제 연구비뿐만 아니라 외국 연구소에서도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동물심도자실 연구논문이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남대병원은 전국에서 심근경색증 환자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병원이다. 순환기환자의 급증으로 심장중재술을 시술받는 건수가 매년 3000건이 넘고, 돼지 실험 논문은 15명의 의학박사가 탄생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1700마리의 돼지 실험을 했고 990편의 논문을 국내외학회지에 게재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약물 부착 관상동맥 스텐트의 특허도 얻고, 그 결과가 미국심장학회지에도 게재됐다. 2010년에는 장성 나노바이오센터에 한국심혈관계 스텐트 연구소 및 공장을 설립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생분해성 폴리머를 이용한 약물부착 스텐트, 천연물질을 이용한 약물 부착 스텐트, 유전자 전달 스텐트 등도 개발해 20여 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심혈관계 마이크로 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이어 2005년도에 대한순환기학회 50주년 기념 연구 사업으로 제안한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사업’이 선정돼 전국의 50여 대학병원을 대표해 심근경색증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심장질환 특성화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2012년에는 대한민국 노벨의학상으로 알려진 분위의학상을 받았다.

돼지를 이용한 실험 덕분에 좋은 연구와 높은 기술 성공률을 이룰 수 있었다. 나는 항상 돼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산다.

기고

지역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김처중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2000년대 최고 인기를 끈 재테크 책 가운데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는데, 이 책이 전하는 내용을 함축하면 가난한 아빠는 스스로 돈을 벌고, 부자 아빠는 돈이 돈을 벌게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부자 아빠가 되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아빠 되기에 뛰어들었다. 빚을 내어 부동산에 투자하고 적금통장을 개설서 펀드에 넣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산버블이 사라지고 부자아빠를 꿈꿨던 대부분의 아빠들을 가난한 아빠로 만들어 버렸다. 최근에 하우스푸어라 하여 집을

있지만 실속은 광동인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이다.

올 2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국민행복기금 등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달해저드나 재원 마련 등 실행과정에 여러 장애물이 산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펬)다. 캠펬 광주전남본부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해결책)과 새 정부의 하우스푸어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목표로 정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에만 머물던 것을 캠펬는 한발 더 나아가 일자리를 앞선해주는 ‘행복 잡(job)’을 운영해 자립과 자활을 위한 동기부여·방법을 제시했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에 따라 지원요건을 완화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대표적 서민금융 프로그램인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

출로 전환)은 지난해 말 누적 지원실적 1조 4000억원을 돌파했다. 서민금융나눔돌봄종합포털(인터넷 종합상담센터)과 1397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운영 등 서민금융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말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실시해 골목상권 살리기도 적극 동참하는 등 지역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캠펬는 국내 최대 국유재산관리기관으로 1997년 업무를 시작한 이래 효율적인 임대·매각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7182억원의 국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했다.

캠펬는 국유일부재산 전체 62만 필지 중 49만 필지(79%)를 관리하고 있다. 오는 3월 잔여 13만 필지를 이관받는다. 지난해 1월에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지난해 사업규모 연간 약 1조원)을 운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유재산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 광주시 남구 종합청사, 세종시 정부출연연구 기관 청사 등 국유지 위탁

개발사업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캠펬 광주전남본부는 서민금융 지원과 국유일부재산 임대·매각 업무 등에 대해 광주·전남지역민들에게 보다 밀착하고자 지난 1월에 목포지방사무소를 개설했다. 앞으로도 전남 동남부지역에 사무소 추가 개설을 추진,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캠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 Replay’를 강화해 지역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지난해에는 지역복지시설에 삼금지원을 비롯해 여성우익스포르 공헌 관람,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온누리상품권 지원, 태풍 수해복구 작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올해도 광주시 등 지자체와 대한적십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발·시행할 계획이다.

국가경제 안전판으로서 50여년간 역할을 수행해 온 캠펬는 앞으로도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 및 고객지향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서민경제를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無等鼓

예전 하루 돌봄 4000원, 일주일 문자 예인 5000원, 손으로 쓴 편지 우편으로 보내주기 2000원, 택배 대신 받아주기 1000원, 강의 대리 출석 1000원, 고민 상담은 카카오톡 이용시 1500원, 전화 2000원, 영성통화 상담은 3000원. 온라인 중고 시장인 ‘웹모카넷’과 크몽의 ‘재능공유’ 및 ‘생활서비스’ 코너에 올라와 있는 알바 상품들이다.

심지어 5분동안 어떤 육이든 다 들어주는 (5000원) 가슴시리고 아픈 상품도 있다. 일부 급전이 절박한 이들은 ‘시켜주면 뭐든지 한다. 가격적 협의’라고 쓰기도 한다. 아침마다 ‘일어나세요! 출근하세요!’ 하는 ‘500원 모닝콜’과 같은 저렴한 아르바이트는 1000개 이상 등록돼 있다.

이들은 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려는 10, 20대들이다. 마켓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루 평균 5만~1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한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쌓은 세대라는 오늘날 우리의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청춘의 자화상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화려한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어렵게 된 청년들이 교육지역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답다고 난 스물’의 세상을 꿈꿨지. (중략) 되고 싶은 것 또 하고픈 일들을 알아내. 랜지 자꾸만 난 불안해. 알았던 모든 것을 전부 허구처럼. 꿈이란 결코 마법처럼 되지 않아’ 버츠의 ‘비망록’에 나오는 글처럼 이시대의 청춘들은 500원 알바를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

갑اند교 교수의 예세이집 ‘아프리카 청춘이 다’가 2010년 출간돼 현재까지 폭발적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지쳐버린 청년들이 위로와 격려의 말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꿈과 현실, 정의와 부조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춘들이 500원 알바를 통해서라도 삶을 더 차열하게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청춘의 자화상



대형마트 설 선물 수입고기 ‘꼼수 상환’ 너무해

설을 맞아 고마운분께 미리 선물을 준비해 보내려고 대형마트에 갔다. 성탄절 전후와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는 택배가 밀려 제때 배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 간 것이다.

선물을 하기 위해 한우 고기를 보러 정육코너에 갔더니 수입고기와 함께 포장돼 팔리고 있었다. 한우는 부위별로 모아놓은 게

20만원~35만원까지 종류별로 있었고, 수입고기는 9만원에서 15만원 정도까지 있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은 고기를 사러 온 사람들에게 고걸 부담스러우면 수입고기도 괜찮으니 고걸 선물하라며 특히 수입고기를 보내도 받는 사람에게 수입고기라는 표시를 해서 보내지 않으니 열려 말라고까지 안내

했다. 거기다가 요즘 수입고기는 질지도 않고 품질이 괜찮다는 말까지 덧붙이는 게 아닌가.

그 말을 들으니 상당히 속이 상했다. 나는 원래 부모님이 농촌에 계시므로 수입고기는 거들떠도 안 봤지만 도시인들이 그 매장 직원의 말을 듣는다면 수입고기에 대한 반감도 사라지고 고걸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거기다가 수입고기를 선물해도 표시를 하지 않으니 열려 말라는 말은 너무나 듣기 거

슬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수입고기를 한우인걸로 속을 것이고, 그 수입고기 맛이 떨어질 경우 한우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고 매장으로 전화해보면 그게 한우인지 수입고기인지 확인도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 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있다. 대형 마트의 선물용 포장 고기가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게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마트에서 이런 식으로 고기를 파는 것은 옳지 않다 본다.

▲김순자·광주시 북구 각회동

<p>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p>	
<p>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성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p>	<p>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재무부 2200-621 체육팀 2200-697 사진부 2200-693 전시부 2200-571 조사팀 2200-685</p>
<p>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p>	<p>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문화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